



내수확대를 위한 신형 도시화 정책

이소양 연구원

■ 12월 25일 남방도시보(南方都市報)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(NDRC)가 ‘도시화 건전 및 발전 추진 계획(2011~2020)’ 초안을 제정했고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고함.

- 동 초안에 따르면 중국당국은 기존의 단순한 도시건설 확대를 통한 도시화와 달리 도시 수용 인구의 정착을 위해 토지양도, 호적, 세제, 주택구입, 지방자금조달 및 행정구역 조정 등 제반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힘.
- 금번 신형 도시화 정책은 중국당국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경제 회복 부진으로 한계에 부딪친 경제성장 모델을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중심형으로 전환하는 조치라고 분석됨.
 - 2012년 중국당국의 대외교역 목표 증가율은 10%로 설정됐으나 올해 1~11월 대외교역 실제 증가율은 5.8%에 그침.
- 또한 중국 도시화율은 2011년 말까지 51%로 70%를 웃도는 세계 주요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.
 - 실제 중국 도시화율은 농촌호적 인구를 제외한 도시호적 보유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51%를 크게 밑도는 35%에 불과함.

■ 전문가들은 신형 도시화 정책이 중국 내 건설투자를 확대하고 소비 증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지적함.

- NDRC는 지난해 51%인 도시화율을 2020년까지 60%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약 40조 위안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가 집행될 것이라고 추산함.
- 또한 해통증권(海通證券)은 신형 도시화 정책에 힘입어 중국 소매판매가 2011년 18.4조 위안에서 2020년까지 58.4조 위안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함.
- 한편, 신형 도시화 정책에 따른 경기부양 기대감으로 25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급등세를 보여 10여 일 만에 다시 2,200선을 넘어섬.

(신량망, 12/25, 신화망, 12/26 등)